

# 2003년도 임원·지회장·사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이달의

한국양록



올해로 5번째 실시된 임원·지회장·사무장 연수회가 내외 귀빈을 포함, 전국 70여명의 지회장, 사무장 등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22일부터 23일 양일간 강원 강릉 소재 주문진가족호텔에서 실시된 연수회에서는 양록관련 특강, 협회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회, 유적지 관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수근 회장은 연수회 개회사를 통해 “양록산업 당면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키 위해서는 업계 지도층에 있는 사람

들의 참여와 협조,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번 행사가 양록인 화합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물론, 양록현안 타개를 위한 좋은 고견들이 규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축산유통연구소 정규성 소장이 ‘축산물 유통현황 및 양록산물 접목방안’이란 주제로, 유구동물병원 이동열 원장이 ‘사슴인공수정 현황 및 겨울철 사양관리 방법’을, 본회 정원영 이사가 ‘사슴에 대한 시군 지원 사례 발표’란 주제로 각각 1시간여에 걸

# 무장 연수회

이 달의 한 기록

## 계회 임원·지회장·사무장 연수회 성료

쳐 특강을 실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록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튿날 실시된 토론회에서는 본회 김수근 회장이 협회 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 엄홍기, 배소식 부회장이 각각 수입 녹용 불법유통과 양록자조금 사업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축산신문 윤봉중 사장 및 한국양토양록조합 한규성 조합장, 전병설 이사, 농민단체 협의회 신동헌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함

께해 양록인들과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았다. 더불어 본회 강성구, 백창현 고문이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1박을 함께하며 행사에 참여, 양록산업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다. **한국양록**